[조건]

<페이지? 페이지 명? 구분 지을만한거 뭔가 있는게 좋지 않을까?>

내용

-fin

[프롤로그를 본다.]

<짐을 싸면서,>

세계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바치고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하늘이 선사하는 축복은 땅을 풍요롭게 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만끽했고, 식물들은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것처럼 위를 향해 자라났다. 동물들은 들과 숲, 산에 있는 것이 풍부하기에 사람의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앙은 내렸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독니로 다섯 기둥을 물어 뜯었다.

세계는 어둠에 잠겼다. 작물은 시들어 갔으며, 들과 산의 짐승들은 사람의 마을까지 내려왔고, 비탄이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위대한 마법사는 용을 봉인하고 기둥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하늘은 더이상 무너져내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법사는 자신의 다섯 제자에게, 다시금 세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라고 일렀고, 제자들은 자신의 피에 ‘희망’이라는 마법을 심는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설에서는 제자는 다섯이라고 하지만, 실존했는지 의문스러운 인물 한 명을 더 포함하여 6명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으며, 예이츠 가문은 나를 여섯번째 제자의 후손으로 지목했다.

나름의 지원을 받았고, 내일은 아카데미가 있는 곳으로 떠날 예정이다. 잘 할 수 있을까?